

# 국어영역 해설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③	11	③		
2	⑤	12	⑤		
3	④	13	①		
4	④	14	⑤		
5	③	15	②		
6	①				
7	④				
8	②				
9	①				
10	⑤				

## 1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제시문에 나타난 후설의 이념적 대상과 본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③ 제시문 세 번째 단락의 “이념 세계는 실재적 세계가 아니다” 및 “이념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지위를 묻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후설은 존재론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념 세계에 실재하는 존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는 진술은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제시문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통해 후설이 유명론에 반대하면서도 본질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실재론이 아닌, 본질을 인식의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의미에서의 실재론 입장을 취함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문 두 번째 단락의 “의식은 시간성을 지니므로, 이념적 대상이 의식 내부에 현존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시간적 존재가 된다”와 “비시간적인 이념적 대상은 시간성을 지닌 의식 내용이 될 수 없다”를 통해 복합적인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다.

④ 제시문 네 번째 단락의 “형상적 독특은 개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서 파악되는 특정한 형상이다”와 “구체자란 '여기 이것'이라 지시될 수 있는 개별자가 사태적 본질로 지닌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음으로부터 색의 다양체로 범례를 전환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뒷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2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후설의 본질 이론에서 하나의 구체자에 포함된 복수의 형상적 독특이 지니는 위계 구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⑤ 제시문 네 번째 단락의 “하나의 구체자에는 서로 다른 유와 종의 분리된 체계에 속하는 복수의 형상적 독특이 연결”된다는 원리와 다섯 번째 단락의 “음으로부터 색의 다양체로 범례를 전환할 수는 없다”는 사례를 결합하면, 음에서 색으로 전환이 불가한 원인은 형상적 독특들이 서로 다른 유와 종의 체계에 속하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의 “형상적 독특임을 본질 직관 이전에는 알지 못한다”를 통해, 사실 속에 형상적 독특이 이미 명시적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 시점이 전도된 부적절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② 자유 변경은 출발상의 특정 측면에 의해 인도되므로, 출발상에 포함된 모든 형상적 독특에 대응하는 본질을 동시에 산출한다는 것은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 추론이다.

③ 형상적 독특은 “가장 낮은 단계의 본질”이므로 가장 높은 단계의 유와 내용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고 추론함이 적절하다.

④ 제시문 네 번째 단락에서 “하나의 구체자에는 서로 다른 유와 종의 분리된 체계에 속하는 복수의 형상적 독특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형상적 독특이 오직 하나의 유에만 속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자유 변경의 원리와 형상적 특성의 인식 시점 구조를 <보기>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④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 전반부의 “우리는 개별적 대상이 형상적 독특임을 본질 직관 이전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 대상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무엇임을 사실로서 알고 있다”와 후반부의 “형상적 독특은 늘 '여기 이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본질 직관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본질로서 파악되는 것이다”를 통해, <보기>의 자유 변경 수행 후 본질에 도달하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평가이다.

①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변경체 생성은 출발상의 사실에 의해 인도된다고 했으므로, '붉음이 유일한 하위 유리는 위계적 위치가 변경체 생성의 인도의 근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형상적 독특은 “자유 변경을 거친 뒤에야” 본질로서 인식된다고 했으므로, 자유 변경 없이도 다른 모든 붉은 대상에서 동일하게 직관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자유 변경은 “본질에 대한 사전적 앎을 전제하지 않으며, 출발상으로서의 사실에 의해 인도된다”고 했으므로, 본질 직관 이전에 형상적 독특이 이미 인식된 것이라는 평가는 부적절하다.

⑤ ㉠의 출발상은 X의 '색' 측면이고 ㉡의 출발상은 X의 '재질' 측면이므로, 두 출발상은 동일한 대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유에 속하는 형상적 독특에서 각각 인도된다. 따라서 동일한 상위 유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허구 작품의 실제 이름 지시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주의 학자들과 박성수의 관점 및 속성을 정확히 대조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④ 제시문 네 번째 단락에서 볼톨리니는 의도치 않은 모순이 책하기 관점 밖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모순을 인위적 소거 없이 고스란히 노출하여 서술적 실수로 지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섯 번째 단락에 제시된 박성수의 대안적 비판 논리이다. 따라서 볼톨리니가 모순의 외부 노출이 경제성 원리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모토아카가 내기 민감성 부재와 허구적 대응물 일괄 규정 주장을 결합하여 대응물 이론의 일괄 적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시문 네 번째 단락에서 언어 관습에 의한 의도 좌절(내부)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불필요한 모순 전이 차단(외부)이라는 볼톨리니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제시문 여섯 번째 단락에서 가르시아-카핀테로가 상상 규정 기능을 위해 일상적 지시와 단절된 특수 기술구 전면 의존을 전제한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시문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표상이 아닌 지시적 관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비-예외주의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 5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박성수가 예외주의자들의 논변을 논파하기 위해 동원한 반박 논리를 이해하고, 비인접 문단의 대원칙과 결합하여 적절한 비판 방식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③ 제시문 첫 번째 단락의 “지시체 결정 메커니즘은 허구 텍스트 내부에서도 일상과 동일하게 관철된다”는 비-예외주의의 대원칙과 일곱 번째 단락의 “비-예외주의가 기술주의를 수용할 경우, 두 이름이... 일상 맥락에서 부여된 서로 다른 고유의 기술구를 허구 맥락에서도 유지하므로 애초에 다른 명제를 표현하게 되어”라는 박성수의 핵심 방어 논리를 종합하면, 카핀테로의 논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함을 추론할 수 있다.
- ①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박성수는 책하기 외부에서도 내부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의도가 언어 관습에 지배당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박성수는 내기 민감성의 부재가 지시 단절은 아니라고 일축하며, 풍자로 도입된 '허구적 이름'과 '실제 이름'은 본질적으로 다른 범주라고 지적했다. 이는 두 이름의 의미론적 동일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④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작가의 원래 의도를 인위적으로 복원하여 교정하는 외부 재해석에 대해 박성수는 일상적인 비평 실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⑤ 제시문 일곱 번째 단락에서 박성수가 차용한 프레게 퍼즐 해법은 “지시적 동일성은 유지되되” 허구 연산자 아래서 명제를 '취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른 지시체를 가리키도록 의미값이 변환된다고 역설한 적은 없다.

## 6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예외주의 모형과 비-예외주의 방어 모형을 <보기>의 구체적인 문학 사고실험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의미론적 판정을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모토아카는 작가가 실존 인물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표상할 경우, 작가가 텍스트 밖에서 명시적 의도를 밝혔더라도 해당 이름은 인지적 유사성만을 맺는 허구적 대응물을 지칭한다고 일괄 규정한다. 따라서 (가)의 카이사르가 실제 대상을 향한 지시적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르시아-카핀테로의 공-지칭어 논변에 따르면, 비-예외주의를 따를 경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동일 명제를 표현하게 되어 독자에게 대상을 다르게 상상할 것을 요구하는 서사적 기능이 파탄 난다고 비판할 것이다.
- ③ 볼톨리니의 경제성 원리에 따르면, 의도치 않은 서술 실수로 인한 내부 모순이 책하기 외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평론에서는 카이사르를 이전과 다른 대응물로 분할 지시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 ④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 나타난 박성수의 입장에 따르면, 책하기 외부에서 텍스트의 내부 모순 자체를 직시하고 작가의 서술 오류로 지적하는 행위가 합리적 비평 실천이라고 옹호할 것이다.
- ⑤ 제시문 일곱 번째 단락에 나타난 박성수의 밀주의적 방어에 따르면, 두 이름의 동일 명제 표현을 인정하더라도 허구 연산자 아래서 독자가 명제를 '취하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인물 간 적대적 설정이 성공적으로 분리 상상될 수 있다고 방어할 것이다.

## 7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기하학적 전체 단면과 실제 전도에 기여하는 유효 단면의 차이를 비롯해 접합부 저항과 관련된 제시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④ 제시문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 실제 전도에 기여하는 것은 전체 단면이 아니라 유효 단면이며, 저항을 좌우하는 변수는 전류가 실제로 흐르는 경로의 길이와 유효 단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① 동일 면적 비교는 비아 면적 확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듯 형상비와 전류 방향성을 분리해 저항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이다.
- ② 제시문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기존 연구는 고전류밀도 영역의 열화(신뢰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저전류밀도 영역 제거에 치중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제시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서 저전류밀도 영역은 제거 가능한 설계 자원으로 언급될 뿐, 전자이동을 직접 유발하여 우선 보강 대상이 된다고 서술하지 않았다.
- ⑤ 제시문 여섯 번째 단락에서 “제시된 레이아웃 최적화도 배선의 끝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배선의 끝부분이 아니어도 같은 제거가 허용됨을 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배선의 유효 높이와 비아의 실제 경로 길이 변화가 전체 저항과 제거 가능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의 원리를 통해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② 유효 높이가 커지면 배선부의 유효 단면이 커져 저항이 낮아질 수 있고, 비아의 실제 경로 길이가 짧아지면 경로 길이의 감소로 비아부 저항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제시문 여섯 번째 단락에 따르면 제거 가능한 영역은 “전류 집중 경로 밖”에 놓인 저밀도 영역이므로, 전류 집중에 참여하는 유효 높이가 커지면 바깥쪽의 잘라낼 외곽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① 제시문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기하학적 단면적이 그대로라도 유효 높이와 경로가 변하면 등가 저항은 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③ 실제 경로가 짧아지면 저항식  $R = \rho L/A$ 에 따라 저항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체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유효 높이가 커진다는 것은 전류가 집중되는 구간이 넓어진다는 의미이므로, 더 좁은 영역에만 몰린다고 오독하여 제거 가능한 영역이 늘어난다고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⑤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 따르면 저항을 좌우하는 변수는 남은 금속의 총량 자체가 아니라 경로의 길이와 유효 단면이다. 따라서 금속 부피 증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제거 가능한 저밀도 외곽과 보존해야 할 집중 경로의 조건을 (보기)의 실제 패키지 기판 사안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① 제시문 여섯 번째 단락에 따르면 제거는 “전류 집중 경로 밖”에서만 가능하고, 제시된 최적화는 “배선의 끝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r$ 은 선로 종단(끝단)에 적용되면서 패드 윗면 가장자리와 비아 외측 등각부라는 저밀도 외곽만을 줄이고 사선 통로와 인접한 얇은 구역(집중 경로)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다.
- ②  $r$ 은 패드 바닥면에 인접한 얇은 구역, 즉 집중 구역을 줄이는 것이므로 저항 증가를 피하기 어려워 채택하기 부적절하다.
- ③  $r$ 은 선로 중간에 적용하므로 “끝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범위를 벗어난다.
- ④  $r$ 은 비아의 사선 통로 일부를 절제하므로 집중 경로 보존 조건을 위배한다.
- ⑤  $r$ 은 적용 위치 조건 위반,  $r$ 은 경로 보존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제 범위의 크기와 무관하게 채택하기 어렵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사회
평가 목표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의 차이 및 이에 따른 구매만족도와 소비행복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⑤ 제시문 첫 번째 단락에서 쾌락적 적응이 신속히 발생하는 것은 '물질소비'이며, 세 번째 단락에서 비용 대비 객관적 산출을 증시하는(가격민감성이 높은) 소비자가 물질소비를 했을 때 지출 비용 대비 계산적 확신을 얻어 인지적 평가인 '구매만족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가치가 빨리 감소해도 객관적 효용을 증시하면 인지적 평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① 제시문 첫 번째 단락에서 물질소비는 경험소비에 비해 쾌락적 적응이 신속히 발생하고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 ② 제시문 네 번째 단락에서 자기감시성의 고저는 물질소비나 경험소비에 대한 최초 선택 확률 자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 ③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구매만족도와 소비행복도는 “항상 일치하여 움직이지는 않으며 완전히 엇갈린 궤적의 비대칭적 조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 ④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가격을 따지는 인지적 성향인 가격민감성은 철저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며, 전반적인 감정적 안녕감인 “소비행복도에는 어떠한 조절효과도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사회
평가 목표	가격민감성과 자기감시성이라는 두 동기적 변수가 각각 구매만족도와 소비행복도에 미치는 조절 경로의 차별성을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③ 제시문 세 번째 단락의 메커니즘을 종합하면, 가격민감성은 가시성이 높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물질소비 조건 하에서만 배타적으로 구매만족도를 증폭시킨다(비대칭적 조절). 아울러 마지막 문장에서 “소비행복도에는 어떠한 조절효과도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효과가 소비행복도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추론은 가장 적절하다.
- ① 자기감시성이 최초 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경제적 효용보다 일관되게 우선시하지는 않음을 방증한다.
- ②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자기감시성이 낮은 소비자가 경험소비에서 더 행복한 이유는 내적 기준을 증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격민감성에 의한 구매만족도 동반 상승으로 인과관계를 섞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④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사회적 승인을 위한 이미지 통제 성향인 '자기감시성'은 지출 비용에 대한 인지적 타당성을 따지는 '구매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⑤ 비용 계산에 덜 기민한 소비자(가격민감성이 낮은 소비자)의 경험소비 행복도를 이성적 평가의 계산적 확신이 보상받은 결과로 환원하는 것은 지표와 기제를 교묘하게 혼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사회
평가 목표	지문에 서술된 심리적 조절효과의 비대칭성 및 교차 현상을 <보기>의 두 그래프 궤적에 대응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⑤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 따르면, 자기감시성(X축)이 강해질수록 타인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가시적 표상 확보가 심리적 안정(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으로 작용하여 물질소비(실선)의 행복도 상승 폭이 경험소비(점선)를 압도하게 되어 우위가 뒤바뀌는 교차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현상을 주관적 안녕감 확보 기제로 설명한 것은 가장 적절한 평가이다.

- ① [그래프 1]에서 가격민감성이 X축이라면 수평을 유지하는 점선은 구매만족도가 변화하지 않는 '경험소비'를 나타낸다. 기능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쾌락적 적응 신속 발생은 '물질소비'의 특징이다.
- ② [그래프 2]의 역전 교차 현상은 자기감시성에 의한 소비행복도의 변화이다. "비용 대비 효용 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은 가격민감성을 뜻하므로 원인 설명이 잘못되었다.
- ③ [그래프 2]에서 X축 값이 낮을 때 점선(경험소비)이 실선 상단에 위치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낮기 때문에)' 내적 체험에 몰입하여 행복도가 높은 것인데, 이를 강하게 의식할수록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전도하여 설명하였다.
- ④ [그래프 1]은 가격민감성과 구매만족도의 관계이므로,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자기감시성)의 부재로 형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알래스타어 매킨타이어의 목적론에 등장하는 '텔로스'와 '해명 책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매킨타이어에게 인간의 궁극적 텔로스는 특정한 목표 지점이나 탐색을 종결짓는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선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직조해 나가는 여정 자체로 규정된다. 따라서 확정적 상태로 규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떠한 중대한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여생은 남게 마련이므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조화롭게 직조해 나가는 여정 자체"라고 명시하였다.
- ③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한 성원이 내재적 선을 진지하게 추구할수록 실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동선의 크기도 확대된다"고 서술하였다.
- ④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나 아퀴나스의 지복과 같은 특정한 활동은 유한한 선에 불과하며 인간의 궁극적 텔로스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하였다.
- ⑤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에서 타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허용된다는 자유주의 통념을 비판하며,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하는 '해명 책임'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비극적 딜레마 속의 도덕적 배려와 삶의 자아통합성 개념 간의 내적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⑤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불가피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선에 대해서조차 깊은 도덕적 배려를 거두지 않음으로써" 탁월함을 증명한다고 했고, 네 번째 단락에서 과거의 결그러운 행적마저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자아통합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여, 포기해야 할 선에 대해 도덕적 배려를 거두지 않는 태도가 곧 상실과 결그러운 경험을 온전히 껴안는 자아통합성의 덕과 논리적으로 궤를 같이함을 추론할 수 있다.

- ① 제시문 네 번째 단락에서 개인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자아통합성이 보존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 ② 제시문 두 번째 단락에서 텔로스는 탐색을 종결짓는 최종적인 확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는 여정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실천적 판단력은 자신의 조건에 대한 '자기-지식'과 속한 '전통에 대한 적합한 감각'을 바탕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전통 감각을 배제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제시문 세 번째 단락에서 공동체 부패를 막으려면 정의, 진실성, 용기와 같은 덕의 발휘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내재적 선을 외재적 선으로 치환한다는 것은 본문의 논리와 상충된다.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학문적 성취라는 특정 선을 이유로 가족을 방치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 매킨타이어의 목적론적 윤리학 기준을 교차 적용하여 메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② K가 거머쥔 막대한 부와 명성은 본질적으로 경합적 성격을 지니는 외재적 선(세 번째 단락)에 불과하다. 또한 다섯 번째 단락의 해명 책임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적 빛을 방기하고 이를 독점한 삶은 자신의 행위를 납득할 만한 좋은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타인들 앞에서 합당하게 해명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① 학문적 성취라는 단일 목적 달성에 집착하여 타인(가족)을 방치한 이기적 행태를 텔로스를 구성하는 여러 선들의 딜레마 속 '지조'나 '자아통합성'으로 잘못 포장하였으므로 부적절하다.
- ③ 인류 지식의 진보를 구실로 도덕적 실패를 덮으려는 것은, 과거 행적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자아통합성의 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타인에게 직접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항변은 현대 자유주의의 통념일 뿐, 해명 책임을 강조하는 매킨타이어의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옹호될 수 없다.
- ⑤ 만일 K가 학문적 성취와 가족 부양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이는 비극적 딜레마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선에 대해 깊은 도덕적 배려를 표하는 과정이므로(세 번째 단락), 텔로스를 향하는 탐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유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